

美 워싱턴 감싸 안은 '연꽃향기'

통도사 워싱턴 포교당 연화정사 4월 17일 개원

미국 워싱턴에 부처님 가르침을 오롯하게 담은 연꽃향기를 전할 전법도량이 문을 열었다.

조계종 통도사 워싱턴 포교당 연화정사(주지 성원)는 4월 17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자리 잡은 도량에서 개원법회를 성황리에 봉행했다. 특히 한국·티베트·중국·일본·베트남 등 각국 불교 불봉의식을 함께 치러 '다민족 다종교 사회'의 의미를 담았다.

이날 연화정사 주지 성원 스님은 인사말에서 "한국불교가 미주에 사원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포교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50여년이 됐다. 그동안 아쉬움도 많았지만 미주 동포들의 고맙은 이념생활을 부처님 자비로 감싸 안아 위로하고, 한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계승하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동포 1~2세대 뿐만 아니라 3~4세대까지도 대비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사회 전반에까지 확대해야 한다. 즉 성공적인 포교활동을 한 단계 비약시켜 현대사회 가치관을 구현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연화정사의 목표로



통도사 워싱턴 포교당 연화정사 개원법회에서 전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다.

△한국불교계와 긴밀한 관계 유지 △미주 한국사원과 유대 강화 △미주 한국불교 포교 모델 정립 △한국불교 문화 전승 및 향유 △현지인 포교 활성화 방안 모색 △승가 교육기반 설치 △세계불교학 연구 산실로 발전 △정보 및 인적 자원 교류 △남북한 종교교류 양장 △타종교와 교류 등을 꼽았다.

이후 前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특별법문과 필라델피아 관음사 주지 정우 스님·김동기 워싱턴 관영사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한 축하공연으로 한국전통 무용과 바이올린·피아노·플룻 연주 등이 펼쳐졌다.

연화정사는 지난해 1월 성원 스님과

신도회가 임시 사찰 운영계획을 의결한 이후 사찰건립과 법회장소 등을 논의해 왔다. 그해 7월 버지니아주 정부에 정관 및 법인을 등록하고, 각종 불사를 추진해 이달 9일 내부공사까지 마쳤다.

한편 연화정사는 5월 15일(현지시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세계 각국 불교 지도자들을 초청해 봉축법요식을 봉행하고, 국제불교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연화정사 주지 성원 스님의 사회로 불교·유대교·개신교·천주교·이슬람교 등 학자 및 성직자가 '종교간의 대화와 협력'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행복 담은 바람이, 불고 또 불어라"

2016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4월 15일 개막

불교문화를 비롯한 한국전통문화를 알리고,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해 2013년 첫걸음을 댄 행복바라미가 올해로 4화째를 맞았다.

(사)남마다좋은날(이사장 이기흥)은 4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6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개막식을 봉행했다. 올해는 지난해에 선보였던 보물 제 1268호 내소사 괘불 영인본이 전시돼 행사의 장엄함을 연출했다.

"나누자 즐기자"라는 주제로 열린 문화대축전은 화관무·양주별산대놀이·남사당놀이 등 전통문화공연과 한지부채 만들기·인경체험·연화다실 등의 체험부스가 진행돼 시민들의 오감을 즐겁게 했다. 오후 6시 진행된 개막식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박원순 서울시장, 정세균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기흥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행복바라미는 전통문화 계승뿐만 아니라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나눔의 씨앗을 곳곳에 뿌리고 확장해왔다"며 "건강한 기부문화 정착과 함께 국민이 하나 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개막식에서 내민들이 개막기법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포교원장 지홍 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지난 3년간 행복바라미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내재돼 있음을 일깨워 준 것으로 전해진다"며 "앞으로도 자비와 참여의 정신을 우리 사회에 더욱 확산해 행복의 가치를 실현하는 좋은 벗이 돼주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알리고 나눔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행복바라미는 속도와 경쟁에 지친 현대인들이 잊기 쉬운 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고 축하했다.

박 시장은 이어 "서울의 대표 문화축제인 연등회를 비롯해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이 서울 빛초롱축제와 더불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축전과 함께 지역 풀뿌리복지 확대를 위해 진행되는 '나눔문화 캠페인'은 오는 30일까지 전국 160여개 모금소에서 총 3억 원을 목표로 모금에 들어간다. 남마다좋은날은 지난해 약 1억7000만원을 모금해 각지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외에도 강릉·수원·청주·대구·전주·공주·울산·광주·부산 행복바라미 지역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1회 불교동화 공모전 장려상 3편 수상

한마음국제문화원이 주최하고 한마음선원이 후원하는 '2016년 제1회 불교동화 공모전' 수상작이 발표했다.

한마음국제문화원은 최근 불교동화 공모전 수상작으로 '배와 바다(나다운)' '등불을 밝힐까요?(조춘실)' '내 친구 그림자(추주희)' 총 장려상 3편을 선정했다.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선정하지 않았다. 시상식은 5월 1일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에서 열리며, 장려상은 상장과 상금 50만원을 받는다.

당선작 일부는 한마음출판사 각색·편집을 거쳐 세계 주요 국제도서전에 선보일 예정이다. 작품에 따라 영어·독일어 등 외국어도 번역된다.

한마음국제문화원 측은 "올해는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선정하지 못했지만 해외에서도 영문 작품을 공모하는 등 관심과 성원이 뜨거웠다"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페트병 모아 'ECO도서관' 짓는다

아름다운동행, 탄자니아에 '에코 도서관 프로젝트' 실시

물이나 음료를 마시고 무심코 버리는 플라스틱 페트병,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잘 활용하면 건물도 지을 수 있다.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무칸바 초등학교에 에코도서관을 짓는 '페트병으로 BOLIM 도서관, 보람차게 지어 보자고요!'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에코도서관 프로젝트 'BOLIM(Bottle Library In Mkamba)'은 버려진 페트병, 페타이어, 폐전축차재 등을 모아 그 안에 모래를 채워 벽돌처럼 활용, 건물의 뼈대를 만드는 형식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업사이클링(Upcycling)' 방식을 착안했다. 업사이클링이란 '업그레이드(Upgrade)'와 '리사이클링(Recycling)'의 합성어로, 단순한 재활용 수준에서 벗어나 원래 용도와 전혀 다른



(재)아름다운동행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무칸바 초등학교에 에코도서관 짓기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아름다운동행 측은 "환경보호에서 더 나아가 그린에너지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에코도서관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며 "쓰레기를 재탄생시켜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움직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는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실어 의의를 더했다. 아름다운동행 측은 "도서관 건립과정에 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 봉사함으로써 스스로 도서관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다"며 "열악한 교육현실에서 놓인 탄자니아 아동들을 위해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동참 문의 (02)737-9595

박아름 기자

자비명상 Egg깨뜨림 'START'

5월 7~8일 안성 굴암사 명상센터

조계종 포교원 인증 청소년마음등불사업 중 하나인 (사)자비명상의 'Egg 깨뜨림'이 가정의 달을 맞아 열린다.

자비명상(대표 마가)은 5월 7-8일 안성 굴암사 명상센터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Egg깨뜨림 인성교육-잠자는 너의 잠재력을 깨워라'를 실시한다.

1박2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진

행되는 교육은 'Egg머니나-내 마음 먼저 알기' 'Egg광-내 안의 틀 깨기' '별아리탄생-이런 까닭이었구나'로 나뉜다. 명상을 시작으로 나와 타인을 이해하고, 내 마음속의 응어리를 바라보며 고정관념을 깨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인부담금은 3만원이며, 세면도구 및 수건 등은 지참해야 한다. 선착순 20명 마감한다. 010-9722-2971

윤호섭 기자

영화 읽어주는 노인, 老年의 꿈 키우다

서울노인복지센터, 4~10월 '영화도슨트 양성과정' 실시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최유)는 '영화도슨트 양성과정'을 4월 29일~10월 25일 센터 내 별관2층 인성교실 및 본관 2층 TOP독립영화관에서 실시한다. '영화도슨트 양성과정'이란 노인들이 직접 영화해설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영화 장르별 감상법 △영화 리뷰 작성법 △영화 토론법 등을 보다 전문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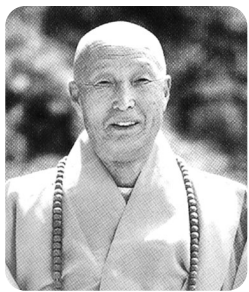
으로 교육한다. 총7개월 28회 교육과정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특히 교육과정 이수자들은 '영화도슨트 순회상영단'으로 조직돼 학교·도서관·복지관 등 문화공간에서 순회상영회를 진행하는 한편, '서울노인영화제'의 노인관객 심사단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대중불교운동!! 법화 보현 관법 수행 지도사 모집

일생 여래 성직자로 함께 할 분 환영



- 출가 수행 과정 : 총본산 및 지역 사원 수행
- 유발 법사 과정 : 수행 후 지역 전도사 수행
- 수행 과정 : ① 지관(자력) 염불(타력) 각 7일
② 용맹정진(중도삼매) 보현 관법행 21일
- 자격 과정 : 전교사, 전법사, 전도사, 대법사
- 수행 기간 : 5~6월 중순 입방 예정(수행 후 수계 건당)
- 제출 서류 :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2장

원할시 본 사암에 상주할 승려(비구·비구니), 유발법사(남·녀), 일반신도 약간명을 모집합니다.

※수행 참선 기도 중 선신들이 구름때처럼 물러와 함께 기도
※적정열반체험 보살 인왕 대선사 직접 지도

총본산 | (재)불교여래종 총본산 금강대약사사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7기
☎ 043-731-2261 | 010-9292-4828(명안스님)

대본산 | (재)여래종 대본산 전통사찰 약사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삼성대로625번길 22
☎ 031-734-3205 | 016-363-6923(인왕큰스님)

소원을 이루는 진언주력명상 그리고 광명사 기도

우리가 살면서 업의 과보(변고)를 덜 겪고 재앙을 피하면서 살수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인류의 재앙이 도는 시절 지각변동(지진)이 일어나고 괴질(괴이한 질병)이 번지는 시절 모든 일들이 어려운 이때 대광명선원에서는 자성을 밝히는 「관세음 보살 모다라니 주력」과 무한한 에너지를 얻는 「옴마니반메훤 진언 명상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대 의왕이신 「관세음 보살님의 모다라니 주력」과 「옴마니 반메훤 호호의 명상기운」은 우주의 생명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신체 주위에 내재해 있는 모든 나쁜것을 전부 분쇄시키는 무궁무진한 힘과 기능을 발휘하여 만유생명을 개척하고 발생, 발전하는 추진력으로 우리의 삶에 건강, 사랑 부를 이끌어 주는 운명의 기운을 돌려줍니다.

이에 기도 동참하실 불자님들께 안내해 드리오니 참석하시어 소원성취 이루시길 바랍니다.

■ 북 전 : 무한한 빛의 운기를 밝히는 「옴마니반메훤 광명사」를 지도소에서 함께 만들어 드립니다. 지도스님 인해,덕후 합장 덕비

■ 기도일정 : 매주 주말(1박 2일)
• 그 첫번째 기도가 5월 셋째주(토요일) 양력(5월 21일) 시작됩니다

■ 매주 선착순 40명만 함께합니다. 전화 예약 받습니다.

※ 소원을 이루는 기도에는 먼저 자신의 몸에너지 바꾸어야 합니다. '옴·까·흠' 3자 진언호흡으로 마쳐있던 통로가 풀립니다.

■ 문 의 : 대광명선원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240번길 32
010-8673-7558
010-5658-2657
031-335-2568

